



“배역 위해 마술 특훈했죠”

석조저택 살인사건 9일 개봉

범인 쫓는 마술사로 변신한 **고수**

“마술로 남을 속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체계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고수(39·사진)가 스크린에 돌아왔다. 그는 오는 9일 개봉하는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범인을 쫓는 마술사 최승만 역을 맡았다.

최근 서울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원래 남을 속이는 것을 잘 못 한다”면서 “개입을 해도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배역을 위해 카드 마술, 탈출 마술 등 한 달간 마술 특훈을 받았다.

‘석조저택 살인사건’은 빌 S. 벨린저의 1955년 소설 ‘이와 손톱’을 원작으로 한 서스펜스 스릴러다. 한 마술사의 이야기와 시체 없는 살인사건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교차한다. 차츰 접점을 이룬다. 그는 “여러 사건과 장르가 충돌하고,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여서 촬영 내내 진실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고수는 지난 2월 개봉한 ‘루시드드림’에 이어 3개월 만에 신작으로 관객과 만난다. 최근에는 하반기 개봉 예정인 ‘남한산성’의 촬영도 마쳤다. ‘총무로에서 가장 바쁜 배우 같다’는 말에 그는 “3~4년 전 받은 시나리오들이 이제 결과물로 완성된 것”이라며 멋쩍어했다.

고수는 영화 ‘집으로 가는 길’(2013)에서는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남편 역을, ‘루시드드림’에서는 납치당한 아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 역을 맡는 등 주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인물을 연기했다. 이번 작품에서도 범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는 “극 안에서 변화가 있는 인물을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악역 등 다양한 캐릭터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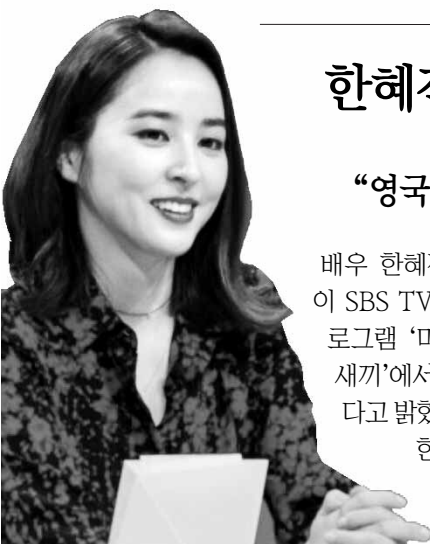
여행과 등산이 취미라는 그는 특히 일본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기쿠지로의 여름’과 같은 로드무비

에도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52살의 철부지 아버지와 엄마를 찾는 9살 꼬마 사이의 따뜻한 우정을 그린 영화다.

“그래도 흥행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한두 작품의 흥행보다는 제가 어떤 배우로 남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수는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는 부담감을 드러냈다.

“저는 리액션이 느린 편이에요. 데뷔 초창기 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주변 분들이 모두 불편하시더라고요. 말도 조심해서 하는 편이지만, 한번 하면 모든 것을 다 깨내는 성격이어서 예능은 저와 잘 안 맞죠. 예능 말고도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한혜진 ‘미운우리새끼’ 복귀설 일축

“영국과 한국 오갈 수 없어...” MC 하차 밝혀

배우 한혜진(사진)이 SBS TV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하차했다고 밝혔다.

한혜진은 지난 28일 자

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12월 ‘미운우리새끼’에서 하차했다”며 5월 MC 복귀설을 일축했다.

그는 “계속 함께하고 싶고 참 욕심나는 프로그램인 ‘미운우리새끼’는 weekly(위클리) 프로그램이라(드라마, 영화, 시즌제 프로그램처럼 끝이 있는 것이 아닌) 제가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녹화할 수도, 그렇다고 남편을 홀로 계속 둘 수도 없어 예정대

로 하차하고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차 이후에 5월에 다시 들어오면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고, 하고 싶고 욕심이 남지만 또다시 인사드리고 가족 곁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혜진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던 제 욕심으로 인해 누를 끼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고 이 글 또한 저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글은 아닐까 한참 망설이다 계속되는 기사로 오해가 붙거는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다”며 “‘미운우리새끼’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인권, 이번달 독일행 “표절 인정 아냐... 좋은 답 가져올 것”

‘걱정말아요 그대’

獨 노래 유사 논란

“표절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좋아해 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답을 갖고 오려는 거예요.”

가수 전인권(63·사진)은 이달 독일로 가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에 가서 해당 곡의 원작자를 만나 “로열티를 달라면 줄 의사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표절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유사하다고 거론된 곡은 1970년대 독일 그룹 블랙 포스(Black Fooss)의 ‘드링크 도흐 아이네 메트’(Drink doch eine met)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그 곡을 만든 사람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며 “그날(합의가 된날 이후) 로열티를 달라고 하면 적당 선에서 합리적으로 재판을 하든, 그쪽 입장대로 로열티가 결정되면 한국 저작권협회와 상의해서 줄 것”이라고 적었다.

이 글이 표절 인정처럼 비치자 그는 이날 “표절은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했다”며 “한 이틀간 지질 정도로 ‘정치적 이다 어쩔다, 가사도 비슷하다’ 하니 독일로 가면 답이 나올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인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서 두 곡을 함께 듣고 원작자의 생각을 물어볼 것”이라며 “내 곡보다 먼저 나왔으니 신사적으로 그 뜻을 존중해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표절 여부는 원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시비를 가리지만, 전인권은 아직 블랙 포스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지 음악 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해 만나보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난 자신있다”며



“두 곡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박자와 애드립 등 스타일이 다르고 내가 흉내 내지도 않았다. 문제 삼는 부분은 많이 쓰이는 멜로디인 데다가 비슷한 다른 노래도 많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그들과 음악적으로 통하면 교류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앞둔으며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또 7월 1일 뉴욕 카네기홀 등 6~7월 미국 4개 도시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문제가 해결돼 곡 작업과 공연 준비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논란이 며칠째 계속되자 김장훈에 이어 시나위의 신대철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본인도 과거 작업한 곡이 해외 아티스트의 곡과 90% 유사한 걸 알고 폐기한 적이 있다며 “‘걱정말아요 그대’의 후렴구가 독일 노래와 흡사하지 만 내가 아는 전인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남의 곡을 훔치는 노고에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코드 진행이 비슷하다고 표절이라고 하면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 5:00 2017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필라델피아 vs LA다저스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00 MBC 뉴스투데이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윤장 오순남> | 30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아임 소리 강남구) |
| 9 | 30 KBS 뉴스 |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 10 좋은 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자구준 뉴스 | 5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재) |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
| 11 | 00 제22회 KBS 119상 시상식 | 00 월화드라마 <안벽한 아내> (재) |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끼 이슈를 말한다 (재) |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
| 12 | 00 KBS 뉴스 12 | | | |
| 1 | 00 제19대 대선 후보자 경력방송 05 미래기획 2030(재) <제조업의 귀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다> 55 제38회 근로자 가요제 | 00 생생정보 스페셜 | 10 키즈 사이언스6 55 파워배틀 와치카 (재) | 55 닥터 365 |
| 2 | |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 25 똑?똑!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더가 | 00 뉴스브리핑 |
| 3 | 3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 2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재) | |
| 4 | 00 4시 뉴스집중 | 00 여유만만 | 00 MBC 뉴스M | 00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
| 5 |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VJ 특공대 (재) | 00 MBC이브닝 뉴스 |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
| 6 |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 10 생방송 빛남 | 05 날씨와 생활 10 고령전문목 남도에 살아라 30 생방송 TV블로그 골짜기 |
| 7 |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 15 닥터 365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
| 8 | 0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 5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4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국민의당 연설원 |
| 9 | 00 KBS 뉴스9 | | 30 리얼스토리 눈 | 05 생활의 달인 |
| 10 | 00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20 가요무대 | 00 월화 드라마 <안벽한 아내> | 0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 00 월화드라마 <갯마을> |
| 11 | 20 KBS 뉴스 30 해외결정드라마 <리셀 웨폰> | 10 미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10 테마기획 길 | 10 초인가족 2017 |
| 12 | 30 101세의 프로젝트 (재) | 35 비바 K리그 |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스포츠특선 |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

| EBS1 | | | |
|---|-----------------------------------|------------------------------|------------------------------------|
| 05:00 양초보 영어 |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 19: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
| 05:30 세계동문록 아틀라스 <동남아 섬 기행 - 필리핀 필라완, 보홀> |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 15:00 요술 상자 | 19:30 EBS 뉴스 |
| 06:00 한국기행 | 09:4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신 통과의례(재) | 15:05 내 친구 아서 | 19:55 다문화 고부 별전 |
| 06:20 세계테마기행 | 10:30 한국기행(재) | 15:20 우주탐험가 잭 | 20:50 세계테마기행 <천국보다 타히타-오라나 타히티> |
|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주꾸미 냉이술발과 파래장> | 15:35 모피와 친구들 | 21:30 한국기행 <불나물열전 2 - 소풍가는 날> |
| 07:30 로보카 폴리 | 11:20 세계테마기행(재) | 15:45 코코몽 3 | 21:50 한국기행 <대통령은 누구인가> |
| 07:45 출동! 슈퍼핑크 | 12:00 EBS 정오 뉴스 |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 22:45 엄마를 찾자마 |
| 08:00 덩동명 유치원 1~2 |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 16:45 덩동명 유치원 1~2(재) | 23:35 가질남녀 |
| 08:30 꼬마버스 타요 |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 17:30 꼬마버스 타요(재) |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
|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 12:45 리얼극장 -행복(재) |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 24:30 세계의 드라마 (다운은 예비 4) |
| 09:00 방귀대장 뽕뽕이 | 13:40 엄마를 찾자마 |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1~4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 5월 1일(음 4월 6일 戊子) | |
|----------------|--|-------------------|--|
| 子 | 48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봐야겠다. 60년생 본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72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보인다. 84년생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04 | 午 | 42년생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54년생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보인다. 66년생 간헐적인 차이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 하리라. 78년생 적합하지 않으면 미리 끊어 버리라. 90년생 참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04, 60 |
| 丑 | 49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61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획기적인 기회들이 보이게 시작한다. 73년생 행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85년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14 | 未 | 43년생 알면서도 소울 한다면 외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55년생 놀랄 수도 있다. 67년생 반복되는 횡수가 늘어난다면 적응하게 되리라. 79년생 상대는 힘드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91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62 |
| 寅 | 50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62년생 불투명한 형국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74년생 오히려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86년생 더 이상 풀러 설 수 없는 형세를 알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09, 40 | 申 | 44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변하겠다. 56년생 어느 누구에게나 아예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8년생 기세가 한창 성하여 극상에 이르렀다. 80년생 부담을 안고서라도 실행해야 할 한국이다. 행운의 숫자 : 51, 21 |
| 卯 | 51년생 오랜 세월 동안의 적폐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것이 옳다. 63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 질 수도 있다. 75년생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87년생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행운의 숫자 : 02, 53 | 酉 | 45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 57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69년생 상대의 조건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81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5, 04 |
| 辰 | 52년생 머지않아서 세찬 폭풍우가 산천초목을 뒤덮으며 불어 올 것이다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64년생 행동력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리라. 76년생 지출은 투자가 될 것이다. 88년생 지난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받는다. 행운의 숫자 : 50, 06 | 戌 | 46년생 과거에 대한 경험을 되살린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나라. 58년생 말만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이가 보인다. 70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7, 47 |
| 巳 | 53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5년생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만이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77년생 아무리 마음이 바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89년생 신 용이 자원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2, 11 | 亥 | 47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59년생 불행적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겠다. 71년생 절제 속에서만이 건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83년생 여기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18, 69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